

**담당 :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 02)560-4448 ㅣ Mobile : 010-7680-310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6월 1일(일) 17:40 ㅣ 보도 일시 : 2025년 6월 1일(일) 17:40**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자 정윤지 관련 기록 및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
| 2 | 기 간 | 2025년 5월 30일(금) ~ 6월 1일(일) |
| 3 | 장 소 | 더스타휴 [휴(OUT) / 스타(IN) 코스]  |
| 4 | 주 최 | Sh수협은행, MBN 매일경제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예선: 6,787야드, 본선: 6,678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출전선수 | 이예원, 박현경, 박보겸, 김민선7, 홍정민, 고지우, 지한솔, 박지영, 정지효 김시현, 송은아, 이채은2, 이소영, 박민지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정윤지 최종합계 17언더파 199타(64-65-70)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820>

**[정윤지 주요 기록]**

**- 2025시즌 첫 우승이자 KLPGA투어 통산 2승 달성**

\* 이전 우승 대회: 2022.05.27(금) ~ 05.29(일) ‘제10회 E1 채리티 오픈’

**◈ 각종 타이틀 순위 변동**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12위**, 누적 103pt(▲70pt)

상금: **7위**, 누적 294,346,667원(▲180,000,000원)

**\*개인 기록**



**\*2025시즌 기록**



**[코멘트-대회 조직위 제공]**

**Q.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했다. 우승 소감?**

(질문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꿈으로만 꾸던 거였는데 실제로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

**Q. 이번 대회에서 퍼트가 급격히 좋아진 이유는?**

원래는 연습을 할 때 샷에 큰 비중을 두고 했다. 늘 연습 목표를 (샷)50대(퍼트)50 잡고 시작하지만 샷 연습하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 결국 80대20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쇼트 게임, 퍼트 연습에 미흡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심각성을 느껴져 연습에 들어갔다. 요즘은 50대50으로 연습하고 있다. 급격히 좋아졌다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연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Q.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는지?**

여러 단계로 했다. 처음엔 리듬을 생각하고 연습했다. 그런데 리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머리가 많이 움직이더라. 퍼트를 할 때 머리가 움직이니 헤드가 열리거나 닫혀서 미스가 많았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했다. 지난 ‘제13회 E1 채리티 오픈’ 때부터는 그립도 크로스핸드 그립으로 바꿨다. 정렬도 원래의 그립보다 잘 나오고 이전에 퍼트를 손으로 치려고 했던 게 부드럽게 리드해주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립을 바꾼 지 2주만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

**Q. 2승을 달성하는 데 3년 걸렸다. 많은 응원 속에서 오히려 힘든 시간도 있었을 듯하다.**

많은 응원을 받는데 우승을 못해서 죄송함이 있었다. 또 성격이 내향적이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가끔은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다.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체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올해 목표가 무엇이었고, 오늘의 우승 후 시즌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22년도 이후 올해까지 시즌 목표는 항상 우승이었다. 계속 우승을 못하다 보니 올해 목표도 우승이라고는 했지만 더 주로 생각한 목표는 꾸준히 상위권에 드는 것이었다. 이번 우승 이후로는 또 우승을 달성하면 물론 좋겠지만, 첫 우승 이후 스스로를 너무 괴롭혔던 거 같아 이번엔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골프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목표다.

**Q. 챔피언 퍼트 순간 어떠한 느낌이 있었는지?**

챔피언 퍼트 전 리더보드를 봤다. 이 퍼트에 연장을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었다. 3년 전 연장전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퍼트를 많이 생각했다. 좋았던 경험에 집중하며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Q. 우승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줄 예정인지?**

5월 달에 어버이날과 엄마 생신,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있었다. 비로소 우승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우승 했으니 가족들에게 선물 하나씩 하려한다.